

와카 번역 텍스트 「殉難遺珠」의 성격 연구

-번역대본을 중심으로-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Contents

- I. 서론
- II. 『義烈回天百首』
- III. 『幕末愛国歌』
- IV. 『志士詩歌集』
- V. 「殉難遺珠」와 『志士詩歌集』의 와카 비교
- VI. 맺음말

I. 서론

안서(岸曙) 김억은 대동아(=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9월부터 이듬해인 1944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막부(幕府) 말기 우국지사(憂國志士)의 작품이라고 미화되었던 와카(和歌) 55수(首)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순난유주(殉難遺珠)」¹⁾라는 제호(題號)로 친일적 성격이 강했던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기관지인 『반도의 빛(半島の光)』²⁾에 연재했다. 이 기관지는 일본어판과 조선어판을 각각 출간했었는데, 일본어판은 월 4만 6천부 정도를, 조선어판은 월 10만부 정도를 간행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더불어 광복 직전까지 출판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반도의 빛』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³⁾ 김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詩)를 중심으로 한 서양의 시를 주로 번역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1) 일본어로는 「じゅんなんいしゅ」라고 읽는다.

2) 일본어로는 「ほんとうのひかり」라고 발음한다.

3) 박태일(2003)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배달말』 제32집, 배달말학회, p.63.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가 일본의 정형시인 와카를 번역했다는 것⁴⁾은 번역사적인 측면에서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⁵⁾ 가운데 「순난유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전무한 상태였다. 그 존재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⁶⁾ 하지만 얼마 전부터 「순난유주」에 관한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상현은 「김억의 와카(和歌) 번역 텍스트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에서는 김억이 왜 「순난유주」를 번역했는가, 「막부(幕府) 말기의 가인(歌人)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에서는 「순난유주」에 소개되어 있는 가인은 어떤 인물인가, 「「순난유주」와 「우국유주」⁷⁾와의 관계성 연구-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에서는 「순난유주」와 그것을 증보한 「우국유주」와의 관계성에 대해 각각 천착했다.⁸⁾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김억이 막부 말기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그가 어떤 것을 참조하면서 번역했는지 곧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 무엇이었나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다. 번역 텍스트를 연구할 때 번역대본을 고찰하는 것은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 영역인데도 말이다.

4) 이에 대한 주요한 선행연구로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영(2014)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345-363.

박상현(2014a) 「식민지 조선에서의 와카 번역사」 『일본문화연구』 제5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61-175.

임선목(1981) 「선역애국백인일수-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제10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65-198.

임종국(2005) 『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pp.461-474.

5) 여기에는 「만엽집초역(万葉集鈔訳)」과 「선역애국백인일수(鮮訳愛國百人一首)」가 있다. 전자는 「만엽집」을 발췌·번역한 것이고, 후자는 단행본인 『애국백인일수』를 완역한 것이다.

6)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를 철저히 조사한 고(故) 임종국조차도 「순난유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임종국(2005) 앞의 책, pp.461-474.

7) 「憂國遺珠」로 표기하고, 「ゆうこくいしゅ」라고 읽는다.

8) 박상현(2014b) 「김억의 와카(和歌) 번역 텍스트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25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29-151.

_____ (2014c) 「막부(幕府) 말기의 가인(歌人)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p.239-260.

_____ (2014d) 「「순난유주」와 「우국유주」와의 관계성 연구-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 『동아시아일본학회』 제5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59-174.

하지만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에 대한 연구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첫째, 김억 자신이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번역대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막부 말기의 와카를 모은 와카집(和歌集)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⁹⁾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에 대한 연구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첫째, 김억이 번역대본으로 채택한 텍스트는 당시 조선에서도 비교적 입수하기 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의 소장도서 가운데 막부 말기의 와카가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순난유주」는 막부 말기의 애국 혹은 우국지사라고 미화된 인물과 그들의 와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 가운데, 「막부(幕府)」, 「순난(殉難)」, 「애국(愛國)」, 「우국(憂國)」 「지사(志士)」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막부 말기의 와카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¹⁰⁾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 선정된 텍스트에 실려 있는 인물과 「순난유주」에 소개되어 있는 인물을 비교한다.

넷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텍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와카와 「순난유주」에 소개되어 있는 와카를 비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검토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본고에서는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확정 지을 수도 있고, 혹은 설령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텍스트에 강한 영향을 받아 「순난유주」를 완성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본고의 의의는 적지 않다

9) 예컨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간된 것으로는 1869년에 나온 조켄분(城兼文)의 『근세순국일인일수전(近世殉國一人一首伝)』 등이 있고, 대동아전쟁 시기에 가까운 것으로는 1938년에 출간된 고이즈미 토조(小泉荜三)의 『유신지사:근왕시가평석(維新志士:勤王時歌評釈)』 등이 있다. 10) 예를 들면 주9)에서 예시한 조켄분(조카네후미)의 『근세순국일인일수전』, 고이즈미 토조의 『유신지사:근왕시가평석』 등을 검토하였다.

고 본다. 곧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확정할 수 있거나, 혹은 「순난유주」에 크게 영향을 미친 텍스트를 추정할 수 있다면 「순난유주」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의 목적은 「순난유주」의 성격을 선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

II. 『義烈回天百首』

앞서 밝힌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을 거쳐 걸러진 텍스트 가운데 우선 『의렬회천백수(義烈回天百首)』가 있다. 일본어로는 ‘ぎれつかいてんひゃくしゅ’라고 읽는다. 희작자(戲作者) 겸 저널리스트인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가 1874년에 동경서방(東京書房)에서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는 막부 말기의 우국지사로서 미화된 인물 100인과 그들이 지었다는 와카 100수가 고바야시 에타쿠(小林永濯)의 삽화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본문의 상단에는 인물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하단에는 와카와 해당 인물의 삽화가 소개되어 있다.

『의렬회천백수』에는 다음과 같은 100인의 가인(歌人)이 실려 있다.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斉昭), 가즈노미야(和宮), 우메다 운빈(梅田雲浜), 아지마 타테와키(安島帶刀), 치노네 이요노스케(茅根伊予助), 후지타 토코(藤田東湖), 구로사와 토키(黒沢登幾), 하스다 이치고로(蓮田市五郎), 사노 타케노스케(佐野竹之助), 아리무라 지자에몬(有村治右衛門), 아리무라 유스케(有村雄輔), 모리 고로쿠로(森五六郎), 시마 오나리(島男也), 이다 타다히코(飯田忠彦), 요시다 쇼인(吉田松陰)¹¹⁾, 나가이 우타(永井雅楽), 하기코(萩侯), 인코(胤康), 요시무라 토라타로(吉村寅太郎), 나카야마 타다미쓰(中山忠光), 후지모토 텃세키(藤本鉄石), 마쓰모토 케도(松本奎堂), 시시도 야시로(宍戸弥四郎), 아사카 고로(安積五郎), 오카미 토메지로(岡見留次郎), 도모바야시 미쓰히라(伴林光平), 노자키 카즈에(野崎主計), 야스오카 카스게(安岡嘉介), 아라마키 요자브로(荒巻羊三郎), 시부야 이요사쿠(渋谷伊予作), 요시다 주조(吉田重蔵), 이누이 주로(乾十

11) 이후에 나오는 ‘요시다 다이지로(吉田大次郎)’와 동일 인물이다.

郎), 도이시 키치사브로(都石吉三郎), 스이군 코하야토(水郡小隼人), 기유(喜遊), 하시구치 쇼스케(橋口壯輔), 다나카 카와치노스케(田中河内介), 가이가 미야토(海賀宮門), 기요카와 하치로(清川八郎), 이오리 칸페(飯居簡平), 센고쿠 타카아키(仙石隆明), 나가오 이쿠사브로(長尾郁三郎), 오가와 사키치(小川佐吉), 히라노 지로(平野次郎), 겐쇼(月照), 구사카베 이소지(日下部伊三次), 라이미키사브로(頼三樹三郎), 이이즈미 키나이(飯泉喜内), 우가이 키치자에몬(鵜飼吉左衛門), 고바야시 민부다이스케(小林民部大輔), 도요시마 야스모리(豊島泰盛), 히라야마 효스케(平山兵助), 고지마 요스케(児島強介), 하스다 토조(蓮田藤藏), 야마자키 신노스케(山崎信之助), 오이시 진키치(大石甚吉), 하야시다 요시타로(林田芳太郎), 사와 노부요시(沢宣嘉), 미타마 산페(美玉三平), 도하라 우키쓰(戸原卯橘), 미나미 하치로(南八郎), 혼다 코사브로(本多小三郎), 요코타 토모지로(横田友次郎), 이토 타쓰타로(伊藤竜太郎), 기무라 아이노스케(木村愛之助), 신카이(信海), 노무라 보토니(野村望東女), 요시다 다이지로(吉田大次郎)¹²⁾, 미야베 테조(宮部鼎藏), 가와세 사치코(河瀬幸子), 마스다 에몬노스케(益田右衛門佐), 구니시 시나노(国司信濃), 후쿠하라 에치고(福原越後), 사쿠마 사헤에(佐久間佐兵衛), 시시도 사마노스케(宍戸右馬介), 마쓰시마 고조(松島剛藏), 오타니 마사미치(大谷正道), 아네가코지 킨토모(姉小路公知), 니시키노코지 요리노리(錦小路頼徳), 기지마 마타베에(来嶋亦兵衛),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하라 류타(原陸太), 마키 야스오미(真木保臣), 사카이 쇼노스케(酒井正之助), 야마모토 세이치로(山本誠一郎), 안도 테쓰마(安藤鉄馬), 후지타 코시로(藤田小四郎), 다케다 코운사이(武田耕雲斎), 이토 에타로(伊藤栄太郎), 구로사와 고사브로(黒沢五三郎), 아카기(赤城), 후쿠시마 오나리(福島男也), 모리 고베에(毛利強兵衛), 시노자키 칸시치(篠崎勘七), 도미타 시로타(富田四郎太), 히가시쿠제 미치토미(東久世通禧), 미부 모토오사(壬生基修), 가와고에 쇼쇼(河越少将), 모리 모토즈미(毛利元純), 가쓰 야스요시(勝参芳)

그럼 지금부터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에 나오는 47명과 단행본 『의렬회천백수』에 등장하는 100인을 아래 <표1>에서 비교해보자.

12) '요시다 쇼인'과 같은 인물이다.

〈丑1〉

연번	『순난유주』 ¹³⁾	『의렬회천백수』 ¹⁴⁾	중복
1	(成就院)信海	信海	○
2	安島帶刀	安島帶刀	○
3	小林(民部大輔)良典	小林民部大輔	○
4	有村雄助(雄輔)	有村雄輔	○
5	金子孫治郎 ¹⁵⁾		
6	梅田源次郎(雲浜)	梅田雲浜	○
7	賴三樹三郎	賴三樹(三樹三郎)	○
8	鯉淵要人 ¹⁶⁾		
9	齋藤監物 ¹⁷⁾		
10	森五六郎	森五六郎	○
11	河野顯三 ¹⁸⁾		
12	日下部伊三次	日下部伊三次	○
13	稲田貫之丞 ¹⁹⁾		
14	蓮田市五郎	蓮田市五郎	○
15	関鉄之助 ²⁰⁾		
16	蓮田藤藏 ²¹⁾		
17	西村左平治 ²²⁾		
18	飯田左馬(忠彦)	飯田左馬	○
19	森山新五左衛門 ²³⁾		
20	海賀宮門	海賀宮門	○
21	清川八郎	清川八郎	○
22	穴戸弥四郎	穴戸弥四郎	○
23	野崎主計	野崎主計	○
24	安積五郎	安積五郎	○
25	伴林六郎(光平)	伴林光平	○
26	南八郎	南八郎	○
27	林田芳太郎	林田芳太郎	○
28	中原太郎 ²⁴⁾		
29	平野次郎(国臣)	平野次郎	○
30	横田友治郎	横田友治郎	○
31	伊藤竜太郎	伊藤竜太郎	○
32	木村愛之介(愛之助)	木村愛之助	○
33	吉田栄太郎(稔磨) ²⁵⁾		
34	佐久間佐兵衛	佐久間佐兵衛	○
35	渡邊内藏太 ²⁶⁾		
36	中村円太 ²⁷⁾		

37	坂本竜馬 ²⁸⁾		
38	村井修理之進(政礼) ²⁹⁾		
39	久坂義助(玄瑞)	久坂玄瑞	○
40	国分新太郎 ³⁰⁾		
41	鶴飼吉左衛門	鶴飼吉左衛門	○
42	吉田松陰(大次郎)	吉田松陰(大次郎)	○
43	伴信友 ³¹⁾		
44	橋守部 ³²⁾		
45	太田垣蓮月 ³³⁾		
46	大國隆正 ³⁴⁾		
47	藤田益子 ³⁵⁾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순난유주」와 『의렬회천백수』는 신카이(信海)를 포함하여 총 26명이 중복된다. 곧 「순난유주」에 나오는 47명 가운데 『의렬회천백수』에 등장하는 인물과 겹치는 가인은 총 26명이다. 55%의 중복률을 보여준다.

13) 앞서 언급했듯이 「순난유주」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기관지인 『반도의 빛』에 실린 것이다.

단, 인용은 정병옥의 영인본에 의한다. 이하 같음.

정병옥(2005) 『半島の光』1-3 청운, pp.249-507.

14) 染崎延房(1874)『義烈回天百首』東京書房, pp.1-105.

15) 가네코 마고지로

16) 고이부치 요진

17) 사이토 켄모쓰

18) 고노 켄쵸

19) 이나다 칸노쵸

20) 세키 테쓰노스케

21) 하스다 토쵸

22) 니시무라 사헤지

23) 모리야마 신고자에몬

24) 나카하라 타로

25) 요시다 에타로

26) 와타나베 쿠라타

27) 나카무라 엔타

28) 사카모토 료마

29) 무라이 슈리노신

30) 고쿠부 신타로

31) 반 노부토모

32) 다치바나노 모리베

33) 오타가키 렌케쓰

34) 오키니 타카마사

35) 후지타 마스코

Ⅲ. 『幕末愛国歌』

다음으로 『막말애국가(幕末愛国歌)』를 살펴보자. 일본어로는 ‘ばくまつあいこくか’라고 읽는다. 가와타 준(川田順)³⁶이 1939년에 제일서방(第一書房)에서 출간한 것인데, 이것은 방금 살펴본 『의렬회천백수』보다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가와타 준이 출간한 책 가운데 1941년 8월에 발간한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³⁷라는 도서가 있고, 김억에게 「선역애국백인일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억이 1943년 7월 2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선역애국백인일수」의 번역대본은 가와타 준의 『애국백인일수』가 아니었다. 김억은 일본문화보국회가 1943년 3월에 출간한 『애국백인일수』를 번역대본으로 삼아 「선역애국백인일수」라는 와카 번역 텍스트를 식민지 조선에 소개했다.³⁸ 여하튼 정황상으로는 『막말애국가』가 앞서 고찰한 『의렬회천백수』보다는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또한 『막말애국가』에 ‘막말애국가주옥선(幕末愛国歌珠玉選)³⁹’이라는 장(章)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었을 가능성을 더 높여 준다. 『막말애국가』는 막말유신(幕末維新) 지사들의 애국가에 대한 주석서인데, 이 책의 중핵을 이루는 것 가운데 ‘막말애국가주옥선’이 들어간다.⁴⁰ 그리고 여기에 ‘주(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주’라는 글자와 같은 한자어다.

『막말애국가』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가다노 아즈마마로(荷田春滿),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가도리 나비코(楫取魚彦), 오자와 로안(小沢蘆庵),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아라키다 히사오유(荒木田久老), 구리타 히지마로(栗田土滿), 모토오리 오히라(本居大平),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오쿠라 와시오(大倉鷺夫), 가모치 마사즈미(鹿持雅澄), 히라가 모토요시(平賀元

36) 가인이자 실업가(實業家). 사사키 노부쓰나(佐佐木信綱)가 그의 스승이다.

37) 일본어로는 ‘あいこくひやくにんいっしゅ’라고 발음한다.

38) 박상현(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집,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40.

39) 일본어로는 ‘ばくまつあいこくかしゅぎょくせん’이라고 읽는다.

40) 川田順(1939) 『幕末愛国歌』第一書房, p.72.

義), 다치바나노 아케미(橘曙覽), 오키니 타카마사(大國隆正), 하야시 시헤(林子平), 다카야마 히코구로(高山彦九郎), 가모 쿤페(蒲生君平),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사쿠라 아즈마오(佐久良東雄), 고레에다 류에몬(是枝柳右衛門), 도모바야시 미쓰히라(伴林光平), 히라노 쿠니오미(平野國臣),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 구사카 겐즈이(久坂玄瑞), 마키 야스오미(真木保臣), 노무라 보토니(野村望東尼), 산조니시 스에토모(三條西季知),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사조 사네토미(三條美美), 후지타 유코쿠(藤田幽谷), 무라타 세후(村田清風), 도다 타다아키라(戶田忠敞), 우메다 운빈(梅田雲浜), 라이 키미사브로(賴三樹三郎), 겿쇼(月照), 미쿠니 유민(三國幽眠), 다카하시 타이치로(高橋多一郎), 아리무라 렌주니(有村蓮寿尼), 고지마 쿠사오미(児島草臣), 고지마 마스코(児島益子), 아리마 신시치(有馬新七), 기요카와 하치로(清河八郎), 후지모토 텃세키(藤本鉄石), 마쓰모토 켄자브로(松本謙三郎), 요시무라 토라타로(吉村寅太郎), 요시무라 토라타로의 모(吉村寅太郎母), 소에니(祖榮尼), 요시다 토시마로(吉田稔磨), 한다 카도키치(半田門吉), 다케다 코운사이(武田耕雲齋), 가와카미 키요타로(川上清太郎), 우치야마 우마시로(内山右馬四郎), 아키토모 쇼이치로(秋元正一郎), 사쿠라기(桜木), 고노 텃토(河野鉄兜), 쓰지 타즈노스케(辻辰之助), 히라이 슈지로(平井收二郎), 구사나기 엔세키(日柳燕石), 기도 타카요시(木孝戸允), 사나다 유키쓰라(真田幸貫),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 고노에 타다히로(近衛忠熙)

그럼 지금부터 「순난유주」에 나오는 47명과 단행본 『막말애국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아래 <표2>에서 비교해보자.

<표2>

연번	「순난유주」	『막말애국가』 ⁴¹⁾	중복
1	(成就院)信海		
2	安島帶刀		
3	小林(民部大輔)良典		
4	有村雄助(雄輔)		
5	金子孫治郎		
6	梅田源次郎(雲浜)	梅田雲浜	○

7	頼三樹三郎	頼三樹三郎	○
8	鯉淵要人		
9	斎藤監物		
10	森五六郎		
11	河野顯三		
12	日下部伊三次		
13	稲田貫之丞		
14	蓮田市五郎		
15	関鉄之助		
16	蓮田藤藏		
17	西村左平治		
18	飯田左馬(忠彦)		
19	森山新五左衛門		
20	海賀宮門		
21	清川八郎	清川八郎	○
22	穴戸弥四郎		
23	野崎主計		
24	安積五郎		
25	伴林六郎(光平)	伴林光平	○
26	南八郎		
27	林田芳太郎		
28	中原太郎		
29	平野次郎(国臣)	平野国臣	○
30	横田友治郎		
31	伊藤竜太郎		
32	木村愛之介(愛之助)		
33	吉田栄太郎(稔麿)	吉田稔麿	○
34	佐久間佐兵衛		
35	渡邊内藏太		
36	中村円太		
37	坂本竜馬		
38	村井修理之進(政礼)		
39	久坂義助(玄瑞)		
40	国分新太郎		
41	鶴飼吉左衛門		
42	吉田松陰(大次郎)		
43	伴信友		
44	橘守部		

45	太田垣蓮月		
46	大國隆正	大國隆正	○
47	藤田益子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난유주」와 『막말애국가』는 우메다 운빈(梅田雲浜)을 비롯하여 총 7명이 중복된다. 곧 「순난유주」에 나오는 47명 가운데 『막말애국가』에 등장하는 인물과 겹치는 가인은 총 7명이다. 15%에 불과한 중복률이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비율이다.

IV. 『志士詩歌集』

마지막으로 『지사시가집(志士詩歌集)』을 검토해보자. 일본어로는 ‘ししかしゅう’라고 읽는다. 이것은 1942년에 후지타 토쿠타로(藤田徳太郎)가 편집하여 소학관(小学館)에서 발간한 것으로 크게 『탄체화가집(歎涕和歌集)』과 『순난전집(殉難全集)』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たんていわかしゅう’⁴²⁾라고, 후자는 ‘じゅんなんぜんしゅう’⁴³⁾라고 발음한다. 그리고 『순난전집』은 다시 ‘순난전초(殉難前草)’, ‘순난후초(殉難後草)’, ‘순난유초(殉難遺草)’, ‘순난속초(殉難続草)’, ‘순난습유(殉難拾遺)’로 되어 있다.⁴⁴⁾ 결국 『탄체화가집』과 『순난전집』을 하나로 합쳐 편찬한 것이 『지사시가집』이다.

방금 『순난전집』이 ‘순난전초’, ‘순난후초’, ‘순난유초’, ‘순난속초’, ‘순난습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반복되고 있는 ‘순난’이라는 한자어를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고의 목적은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번역 대본을 추정하여 이 텍스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인데, 『지사시가집』에 수록된 『순난전집』에는 ‘순난’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게다가 『순난전집』

41) 川田順(1939) 前掲書, pp.1-388.

42) 미야지 코레노부(宮地維宣)가 1869년에 편집한 것이다. 1943년에는 히로타 에타로(広田栄太郎)가 교주(校註)하여 암파서점(岩波書店) 곧 이와나미서점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43) 죠켄분이 1869년에 청운각(靑雲閣)에서 출간했다.

44) 이들을 각각 일본어로는 ‘じゅんなんぜんそう’, ‘じゅんなんこうそう’, ‘じゅんなんいそう’, ‘じゅんなんぞくそう’, ‘じゅんなんしゅうい’라고 읽는다.

에는 특히 ‘순난유초’라는 것도 실려 있기 때문이다. ‘순난유초’의 ‘유초(遺草)’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긴 글이나 원고를 말하고,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유주(遺珠)’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뛰어난 시문(詩文)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지사시가집』에 포함되어 있는 『순난전집』의 ‘순난유초’와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는 자의(字意)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순난유주」라는 제목은 ‘순난유초’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명(書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은 ‘순난유초’ 등이 수록되어 있는 『지사시가집』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에 나오는 인물과 『지사시가집』⁴⁵⁾에서 소개되어 있는 인물을 다음 <표3>에서 비교해보자.

<표3>

연번	「순난유주」	『지사시가집』 ⁴⁶⁾	중복
1	(成就院)信海	信海	○
2	安島帶刀	安島帶刀	○
3	小林(民部大輔)良典	小林良典	○
4	有村雄助(雄輔)		
5	金子孫治郎	金子孫治郎	○
6	梅田源次郎(雲浜)	梅田雲浜	○
7	頼三樹三郎	頼三樹三郎	○
8	鯉淵要人	鯉淵要人	○
9	斎藤監物	斎藤監物	○
10	森五六郎	森五六郎	○
11	河野顯三	河野顯三	○
12	日下部伊三次	日下部伊三次	○
13	稲田貫之丞	稲田貫之丞	○
14	蓮田市五郎	蓮田市五郎	○
15	関鉄之助	関鉄之助	○
16	蓮田藤藏	蓮田藤藏	○
17	西村左平治	西村左平治	○
18	飯田左馬(忠彦)	飯田忠彦	○

45) 『지사시가집』에는 고메천황(孝明天皇), 가즈노미야(和宮) 등을 비롯하여 총 340여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이들을 전부 열거하지 않고,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와 겹치는 가인만 <표3>에서 소개한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

19	森山新五左衛門	森山新五左衛門	○
20	海賀宮門	海賀宮門	○
21	清川八郎	清川八郎	○
22	宍戸弥四郎	宍戸弥四郎	○
23	野崎主計	野崎主計	○
24	安積五郎	安積五郎	○
25	伴林六郎(光平)	伴林光平	○
26	南八郎	南八郎	○
27	林田芳太郎		
28	中原太郎	中原太郎	○
29	平野次郎(国臣)	平野国臣	○
30	横田友治郎	横田友治郎	○
31	伊藤竜太郎	伊藤竜太郎	○
32	木村愛之介(愛之助)	木村愛之助	○
33	吉田栄太郎(稔磨)		
34	佐久間佐兵衛	佐久間佐兵衛	○
35	渡邊内藏太	渡邊内藏太	○
36	中村圓太	中村圓太	○
37	坂本竜馬		
38	村井修理之進(政禮)	村井政禮	○
39	久坂義助(玄瑞)	久坂玄瑞	○
40	国分新太郎	国分新太郎	○
41	鶺鴒吉左衛門	鶺鴒吉左衛門	○
42	吉田松陰(次郎)	吉田松陰	○
43	伴信友		
44	橋守部		
45	太田垣蓮月		
46	大國隆正		
47	藤田益子	藤田益子	○

<표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순난유주」에 나오는 인물과 『지사시가집』에 실려 있는 가인이 겹친다는 사실이다. 총 47명 가운데 39명이나 중복된다. 중복률이 무려 약 83%에 달한다.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 『지사시가집』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그러면 「순난유주」와 『지사시가집』에서 중복되는 인물들이 읊은 와카는 어떠

46) 藤田徳太郎(1942) 『志士詩歌集』小学館, pp.1-286.

한가? 그들이 창작한 와카까지 서로 겹친다면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 『지사시가집』일 확률은 더욱 더 커진다.

V. 「殉難遺珠」와 『志士詩歌集』의 와카 비교

지금부터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 「순난유주」와 이것의 번역대본으로 추정되는 『지사시가집』사이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인물 39명의 와카를 비교해보자⁴⁷⁾. 그것을 <표>로 작성한 것이 아래와 같은 <표4>다.

<표4>

가인	「순난유주」	『지사시가집』	
		『탄체화가집』	『순난전집』
(成就院)信海	西の海東の空とかはれども こころは同じ君が代のため		西のうみひがしのそらとか はれどもこころはおなじ君 が代のため
安島帶刀	国を思ひ世を歎きてのまこ ころは 天にも地にもあに 耻めやは	国を思ひ世を歎きての真心 は天にも地にもあに恥ぢめ やは	
小林(民部大輔)良典	たをやめも国のためをば思 ふなれ などますら男のあ だにすこせる		たをや女も国のためをばお もふなれなどますら男の仇 にすこせる
金子孫治郎	ます鏡清き心は玉の緒の絶 えてし後ぞ世に知らるべき	十寸鏡清き心は玉の緒の絶 えてし後ぞ世に知らるべき	
梅田源次郎(雲浜)	天の戸をおし明け方の雲間 より 出づる日影の曇らず もかな	天の戸をおし明けがたの雲 間より出づる日影の曇らず もかな	
頼三樹三郎	浮雲の覆ふ姿はかはれど も萬代おなじ天つ日のか げ		
鯉淵要人	君がため思ひをはりし梓弓 ひきてゆるまじやまと魂		君がためおもひをはりし梓 弓ひきてゆるまじ日本魂
斎藤監物	君がためつもる思ひも天つ 日にとけてうれしきけさの 淡雪		君がためつもるおもひも天 つ日にとけてうれしきけさ の淡雪

47)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와카 원문의 비교다. 따라서 와카의 우리말 번역은 굳이 하지 않는다.

森五六郎	いたづらに散る桜とや言 ひなまし 花の心を人は知 らすて		
河野顯三	斃れても亦起きぬらん我が こころ しこのたふれし尽 くるときまで		斃れてもまたおきぬらん我 がこころしこのたふれしつ くるときまで
日下部伊三次	五月雨のかぎりありとは知 りながら 照る日をいのる 心せはしき		さみだれのかぎり有りとは しりながら照る日をいのる こころせはしき
稲田貫之丞	時ありて咲き散るとも桜 花何か惜しまむやまと魂	時ありて咲きちるとも桜 ばななにかをしまんやまと だましひ	
蓮田市五郎	世のためと思ひつくせし ま心は天つみ神もみそな はすらむ		
関鉄之助	かれ残るすすきに風の音た てて 二むら過ぐる小夜時 雨かな		かれのこるすすきに風の音 たててひとむらすぐる小夜 しぐれかな
蓮田藤蔵 *	武蔵野のあなたこなたに道 はあれど わかゆく道はも のふの道		むさしののあなたこなたに 道はあれど我が行くみちは ますら男のみち
西村左平治	風に散る露となる身はいと はねど 心にかかる国のゆ く末		風に散る露となる身はいと はねどこころにかかる国の ゆくすゑ
飯田左馬(忠彦)	ちばたまの世は五月雨の 雨よりも まさりて落つる わが涙かな		
森山新五左衛門	浮雲をはらひ清めて秋津洲 のやまと島根に澄める月見 む		うき雲をはらひ清めて秋津 洲の大和島根にすめる月み む
海賀宮門	夏の夜のみじかき床の夢だ にも 国やすかれとむすび こそすれ		夏の夜のみじかき床の夢だ にも国やすかれとむすびこ そすれ
清川八郎	ふきおろせ不二の高嶺の 大御風 よもの海路のちり を攘はむ		
穴戸弥四郎	今はただ何か思はむ敵あま た打ちて死にきと人の語ら ば		いまはただなにかおもはむ 敵あまたうちて死にきとひ とのかたらば
野崎主計	大君につかへまつれるそ の日より わが身ありとは 思はざりけり		

安積五郎	ちかひてし心は回じ心にて おくれし身こそ悲しかりけり		ちかひてし心はおなじ心にて おくれし身こそ悲しかりけれ
伴林六郎(光平)	大丈夫の世をなげきつる をたけびに たぐふか今も 峯のこがらし	원본 누락	
	ますら男の心は花は咲きに けり散りても四方に香は匂 ひつつ	ますら男のこころの花は咲 きにけりちりても四方に香 は匂ひつつ	
南八郎	議論より実を行へなまけ武 士国の大事をよそに見る馬 鹿		議論より実をおこなへなま け武士国の大事をよそに見 る馬鹿
中原太郎	臥して思ひ起きても思ふ皇 のみ旗なびかしえみしはら はむ		ふしておもひおきてもおも ふ皇のみはたなびかしえみ しはらはむ
平野次郎(国臣)	わが胸のもゆる思ひにく らぶれば 煙はうすしさく らじま山		
	弓は折れ太刀は砕けて身は つかれ いきつきあへず死 なは死ぬべし	弓はをれ太刀はくだけて身 はつかれいきつきあへず死 なばしぬべし	
	菰着てもむしろに寝ても 大丈夫の 大和魂なにけが るべき		
	天つ風吹くや錦の旗の手に 靡かぬ草はあらじとぞ思ふ		天つ風吹くや錦の旗の手に なびかぬ草はあらじとぞお もふ
横田友治郎	五月雨は降りまさりけりふ る里の 我がたらちねやい かにますらむ		さみだれはふりまさりけり 古里の我がたらちねやい かにますらむ
伊藤竜太郎	たらちねに先だつ罪は重 くともいかがはすべき天皇 のため		
	事なきを祈るは人の常なれ どやむにやまれぬ今日の世 の中		ことなきをいのるは人の常 なれどやむに止まれぬ今日 の世の中
木村愛之介(愛之助)	いかにせむ君は名ごりを惜 しむかな 今露じもと消ゆ る身なれば		いかにせん君に名ごりをを しむかな今露じもときゆる 身なれば
佐久間佐兵衛	心あらば梢の紅葉しばし 待てあはれわが身とともに に散らばや		

渡邊内藏太	早咲けば早手折らるる梅 の花清き心を君にしらせて て		
中村円太	こころなくながらへし身の 限りぞと 待たれし秋もく れはてにけり		こころなくながらへし身の かぎりぞとまたれし秋もく れはてにけり
村井修理之進(政礼)	天つ日の神の光に生れ来て 生れ出でたりし大和だまし ひ		天つ日の神のひかりに生れ 来てあれ出でたりし大和だ ましひ
久坂義助(玄瑞)	ほとどぎす血に啼くこえは 有明の 月よりほかに知る 人ぞなき ゆく川の過ぎにし人の跡 とへばますら猛男も涙ぐ ましも		ほとどぎすちになく声は有 明の月より外に知る人ぞな き
国分新太郎	尽してもまた尽しても尽し ても尽し甲斐なきしづがま 心		つしてもまた尽してもつし てもつしがひなきしづが真 こころ
鶴飼吉左衛門	うれしさは何にたとへむ山 桜 散りにし花の咲きかへ る世か		
吉田松陰(大次郎)	七たびも生きかへりつつえ みしらを はらはむ心我わ すれめや		七たびも生きかへりつつえ みしらを はらはむこころ我 わすれめや
藤田益子	すめらぎのみ国おもへば二 つなき 命をあだに散らさ ずもがな	원본 누락	

<표4>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텍스트 사이에 중복되는 인물 39명이 창작한 와카는 총 45수이다. 『지사시가집』에서 ‘원본 누락’으로 되어 있는 와카를 「순난유주」에 실려 있는 와카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45수 중 32수가 겹쳐서 와카 중복률은 약 71.1%가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45수 중 30수가 겹쳐 와카 중복률은 66.6%가 된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 간의 와카 중복률은 66.6%와 71.1%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지사시가집』은 『탄체화가집』과 『순난전집』으로 구성되는데, 중복률이 가장 낮은 66.6%를 적용했을 경우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와 『탄체화가집』의 와카가 겹치는 것은 6수이고, 「순난유주」와 『순난전집』의 와카가 중복되는 것은 24수다. 곧 「순난유주」는 『순난전집』과 비교적 높은 중복률을 보여준다. 셋째, 중복되는

와카에 표기상의 차이가 보인다.⁴⁸⁾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순난유주」쪽이 『지사시가집』보다 와카에 한자 표기를 더 많이 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⁴⁹⁾

결국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가 『지사시가집』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이 『지사시가집』이라고 확정 짓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첫째, 「순난유주」에는 『지사시가집』에 나오지 않는 아리무라 유스케(有村雄助), 하야시다 요시타로(林田芳太郎), 요시다 에타로(吉田榮太郎),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 반노부토모(伴信友), 다치바나노 모리베(橘守部), 오다가키 렌게쓰(太田垣蓮月), 오쿠니 타카마사(大国隆正)와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⁵⁰⁾ 둘째, 라이 미키사부로(頼三樹三郎), 모리 고로쿠로(森五六郎) 등은 「순난유주」와 『지사시가집』에서 중복되어 등장하는데, 김억은 『지사시가집』에 실려 있는 라이 미키사부로, 모리 고로쿠로 등의 와카를 인용하지 않고, 동일 인물의 다른 와카를 싣고 있다.⁵¹⁾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렬회천백수』, 『막말애국가』, 『지사시가집』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순난유주」가 『지사시가집』, 특히 『지사시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순난전

48) <표4>에 ‘밑줄’로 표시해두었다.

49) 하스다 토쥬(蓮田藤藏, <표4>에서 ‘*’ 표시)의 와카에 보이는 ‘ものふ」(「순난유주」)와 ‘ますら男」(『지사시가집』)와 같은 어휘 레벨에서의 차이는 오히려 예외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은 유의어이기에 크게 다르다고도 볼 수 없다.

50)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아리무라 유스케는 사츠마번(薩摩藩) 출신 무사이고, 하야시다 요시타로는 출신을 잘 알 수 없고, 요시다 에타로는 존왕양이론자이고, 사카모토 료마는 도사번(土佐藩) 출신 무사 및 지사이고, 반노부토모는 오바마번(小浜藩) 무사이고, 다치바나노 모리베는 국학자이고, 오다가키 렌게쓰는 여류가인이고, 오쿠니 타카마사는 국학자이다. 아쉽게도 이들 간에 특별한 공통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https://kotobank.jp/>(검색일 : 2014.12.1)

51)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맺음말’에서 기술한다.

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순난전집』에는 ‘순난’이라는 한자어가 나오고⁵²⁾, 게다가 『순난전집』에는 ‘순난유초’라는 것도 실려 있기 때문이다.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와 ‘순난유초’는 자의 면에서 겹친다. 또한 「순난유주」와 『지사시가집』사이에는 중복되는 와카도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은 김억이 「순난유주」를 발표할 때, ‘순난유초’가 수록되어 있는 『지사시가집』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지사시가집』을 검토함으로써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후지타 토쿠타로는 『지사시가집』의 서문에서 그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한다.

바야흐로 지금 대동아전쟁기에 (중략) 일억 국민 모두가 유신지사(維新志士)와 같은 혼(魂)과 정신하에 이젓(대동아 건설, 인용자)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기르는 데에는 지사의 전기(傳記)를 읽고, 지사의 진심(衷心)이 담긴 시가(詠懷)를 접하여 그 마음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본서를 편찬하는 취지도 그 점에 있는데, (중략) 모든 국민이 존왕양이의 대의와 더불어 국가추진의 일념으로 살았던 충렬한 무사(士)를 배워서 현대의 대동아전쟁을 필승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기백을 (본서에 실려 있는) 시가(詩歌)들로 고양시킬 수만 있다면 본서 간행의 의도 또한 달성됐다고 말할 수 있다.⁵³⁾

요컨대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는 막부 말기에 ‘존왕양이’를 내걸었던 우국지사라고 미화된 인물들의 와카를 통해 그들의 정신과 마음가짐

52) 내지(内地)에서 발견된 단행본 가운데 대동아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순난’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간 도서는 다수 발견됐지만, 그 가운데 와카집은 『순난전집』 말고는 찾지 못했다.
http://ci.nii.ac.jp(검색일 : 2014.12.1)

53)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や大東亞戦争において、(中略)一億国民のすべてが、維新志士と同じ魂、同じ精神の上に立って、これをな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この精神を養うには、志士の伝記に接し、更に、志士の衷心の詠懷に触れてその心をわが心とするのが、最上の道である。本書の編纂する主旨も、その点にあるが、(中略)すべての国民が、尊皇攘夷の大儀と、一面、国家推進の力に生きた忠烈の士に学んで、現代の大東亞戦争の必勝を期することが、何よりも望ましいのである。さうして、その気魄を、これらの詩歌によって昂揚せられることが出来たなら、本書刊行の意図も亦、達成せられたと云ってとよい。」

藤田徳太郎(1942) 「志士詩歌集」小学館, pp.3-4.

을 현재 진행 중인 대동아전쟁에 프로파간다로 활용하여 제국일본의 신민(臣民)을 ‘순국(殉國)’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김억은 이런 취지와 의도를 가진 내지에서 출간된 『지사시가집』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외지(外地)인 식민지 조선에 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를 발표했다.⁵⁴⁾ 하지만 김억은 『지사시가집』을 발췌하여 그냥 그대로 조선어로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는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를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이 선정한 와카를 추가하여⁵⁵⁾ ‘새로운’ 막부 말기의 와카 텍스트 겸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를 완성했다.⁵⁶⁾ 그렇기 때문에 「순난유주」에는 『지사시가집』에 나오지 않는 아리무라 유스케 등과 같은 인물이 7명 등장하고, 『지사시가집』과 중복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일 가인의 다른 와카도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다.⁵⁷⁾

54)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에 부합하는 와카가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에서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고노 켄조(河野顯三)의 “죽은들 이마음은 쪼다시 사울것이 저원수 늑기前에는 눈감을길 잇스라(斃れても亦起きぬらん我がこころしこのたふれし尽くるときまで)”, 시시도 야시로(“이재야 내무엇을 다시금 앗길것가 원수를 많이놓히고 슬지드라 이르소(今はただ何か思はむ敵あまた打ちて死にきと人の語らば)”, 요시다 쇼인의 “일곱번 다시살아 이목습 잇슬진대 저원수 쟈려놓힐맘 가실줄이 잇스라(七たびも生きかへりつつえみしらはらはむ心我わすれめや)” 등이 그것이다.

정병욱(2005) 앞의 책, pp.249-507.

55)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순난유주」가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를 손상한 것은 전혀 없다.

56) 이와 같이 김억은 와카 번역 텍스트를 소개할 때 내지에서 나온 와카 텍스트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와카 텍스트 겸 와카 번역 텍스트를 선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그는 1944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단행본 『선역애국백인일수』를 출간했는데, 이것은 내지에서 나온 「애국백인일수」를 그냥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문학보국회가 발간한 「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완역한 「선역애국백인일수」와 거기에 부록으로 「우국유주」를 추가하여 전혀 다른 와카 텍스트 겸 와카 번역 텍스트를 만들었다. 참고로 「우국유주」라는 텍스트에 관해서는 박상현(2014d)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57) 이점이 대동아전쟁기 직전과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와카를 조선어 번역했던 또 다른 사람들인 이광수 그리고 서두수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것을 어떻게 평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 논저>

- 김영(2014)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고찰」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345-363.
- 박상현(2014a) 「식리지 조선에서의 와카 번역사」 『일본문화연구』 제5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61-175.
- _____(2014b) 「김억의 와카(和歌) 번역 텍스트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제25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29-151.
- _____(2014c) 「막부(幕府) 말기의 가인(歌人) 연구-「순난유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3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p.239-260.
- _____(2014d) 「「순난유주」와 「우국유주」와의 관계성 연구-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 『동아시아일본학회』 제5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159-174.
- _____(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집,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40.
- 박태일(2003) 「이원수의 부왜문학 연구」 『배달말』 제32집, 배달말학회, p.63.
- 임선묵(1981) 「선역애국백인일수-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제10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65-198.
- 임중국(2005)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pp.461-474.
- 정병욱(2005) 『半島の光』 1-3 청운, pp.249-507.
- <일문 단행본>
- 川田順(1939) 『幕末愛国歌』 第一書房, pp.1-388.
- 染崎延房(1874) 『義烈回天百首』 東京書房, pp.1-105.
- 藤田徳太郎(1942) 『志士詩歌集』 小学館, pp.1-286.
- <인터넷 자료>
- <https://kotobank.jp>(검색일 : 2014.12.1)
- <http://ci.nii.ac.jp>(검색일 : 2014.12.1.)

- ❖ 투고일 : 2014.12.23
- ❖ 심사완료일 : 2015.01.29
- ❖ 게재확정일 : 2015.02.09

Abstract

와카 번역 텍스트 「殉難遺珠」의 성격 연구

-번역대본을 중심으로 -

박상현

본고에서는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殉難遺珠)」의 번역대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렬회천백수(義烈回天百首)』, 『막말애국가(幕末愛國歌)』, 『지사시가집(志士詩歌集)』을 면밀히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순난유주」의 번역대본을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순난유주」가 『지사시가집』, 특히 『지사시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순난전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순난전집」에는 ‘순난(殉難)’이라는 한자어가 나오고, 게다가 「순난전집」에는 ‘순난유초(殉難遺草)’라는 것도 실려 있기 때문이다. 김억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와 ‘순난유초’는 자의 면에서 겹친다. 또한 「순난유주」와 『지사시가집』사이에는 중복되는 와카도 적지 않았다. 이 사실은 김억이 「순난유주」를 발표할 때, ‘순난유초’가 수록되어 있는 『지사시가집』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지사시가집』을 검토함으로써 「순난유주」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후지타 토쿠타로는 『지사시가집』의 서문에서 이 책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는 막부 말기에 ‘존왕양이’를 내걸었던 우국지사라고 미화된 인물들의 와카를 통해 그들의 정신과 마음가짐을 현재 진행 중인 대동아전쟁에 프로파간다로 활용하여 제국일본의 신민(臣民)을 ‘순국’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김억은 이런 취지와 의도를 가진 ‘내지’에서 출간된 『지사시가집』에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외지’인 식민지 조선에 막부 말기의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를 발표했다. 하지만 김억은 『지사시가집』을 발췌하여 그냥 그대로 조선어로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는 『지사시가집』의 편찬 취지와 간행 의도를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이 선정한 와카를 추가하여 ‘새로운’ 막부 말기의 와카 텍스트 겸 와카 번역 텍스트인 「순난유주」를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순난유주」에는 『지사시가집』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7명 등장하고, 『지사시가집』과 중복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일 작가의 다른 와카도 소개되어 있었던 것이다.

Key Words : 순난유주, 의렬회천백수, 막말애국가, 지사시가집, 번역대본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Zyunanyuizyu*,
 a Translation of *Waka* into Korean
 - Focusing on the translated script

Park, Sang-hyun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d *Giretukaitenhyakusyu*, *Bakumatuaiokoku*, and *Sisisikasyu* to analyze the translated script of *Zyunanyuizyu*, Kim Eok's translation of *waka*, a form of Japanese poetry. Unfortunately, it was not able to confirm the translated script of *Zyunanyuizyu*. It was determined with certainty, however, that *Zyunanyuizyu* was influenced by *Sisisikasyu* (especially by *Zyunanzensyo*). For example, the Sino-Korean word "Zyunan" was found in *Zyunanzensyo*. In addition, *Zyunanisou* was included in *Zyunanzensyo*. *Zyunanyuizyu* and *Zyunanisou* are matched in literally. In addition, quite a few *waka* were matched between *Zyunanyuizyu* and *Sisisikasyu*, which means that Kim Eok referred to *Sisisikasyu*, where *Zyunanisou* was written a lot when writing *Zyunanyuizyu*.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Zyunanyuizyu* by reviewing *Sisisikasyu*. Fujita Tokutaro mentioned the intention and purpose of the publication in the preface of *Sisisikasyu*. For example, *Sisisikasyu* was published with the goal of making the people of the Empire of Japan willing to sacrifice their lives for their country in the Pacific War through the *waka* in which people were beautified as martyrs during the late Tokugawa period under the slogan "Sonnouzyoui." With a huge inspiration from *Sisisikasyu* published by Naiti with the said purpose and intention, Kim Eok published *Zyunanyuizyu*, a translated text of *waka* in the colonial Joseon during the late Tokugawa period. He did not just cite and translate *Sisisikasyu* into Korean, even though he had been permitted to do only that if he had wished. He referred to *Sisisikasyu* and added the *waka* he had chosen. As a result, the translated text during the late Tokugawa period, "*Zyunanyuizyu*," was finally completed. As a result, seven people who were not mentioned in *Sisisikasyu* appear in

Zyunanyuizyu. Even for those characters that had come from *Sisisikasyu*, the author's other *waka* were introduced.

Key Words : *Zyunanyuizyu*, *Giretukaitenhyakusyu*, *Bakumatuaiokoku*, *Sisisikasyu*,
Translated script